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프로보노 사업 추진

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대상 경영·세무회계·법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자문·컨설팅 지원

전북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프로보노(재능기부)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도가 올해 추진하는 프로보노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경영, 세무회계, 법률, 인사노무, 기술개발, 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해, 도내 (예비)사회적기

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대상으로 자문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들 재능기부는 상시상담과 컨설팅, 프로보노데이가 등이 이뤄진다. 상시상담은 전문가와 기업의 1:1 매칭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이뤄진다. 컨설팅은 집단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분야별 프로보노들이 동시에 분석한 후, 이에 대

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프로보노데이는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프로보노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로 매달 6월에 개최한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앞으로도 프로보노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회적기업의 디딤돌로 작용하기를 바란다"며 "프로보노

의 사회적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내 전문가와 도민들이 참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보노 사업의 신청과 상담은 전북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214-9351~9360)로 문의하면 된다.

/유효상 기자

임업인 바우처 신청 기간 연장·요건 완화

도, 5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전북도가 도내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업인 바우처 신청 기간 연장과 요건을 완화했다.

도는 당초 30일까지 예정된 접수 기한을 2주간 연장해 오는 5월 14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을 통해 신청받으며, 지급 대상 요건도 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바우처 사업은 일가 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일가 당 30만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일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가지 종류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에는 산림청에 등록된 임업인으로 대상을 제한했으나, 이번엔 국립농산물관리관리에 등록된 경영체의 경영주까지 포함하며, 대상을 확대했다.

버섯류나 산나물류, 약초류 등을 생

산하는 경영주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소규모 일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도 대상을 확대했다.

5ha 미만의 임야나 임야 외 0.5ha 미만의 토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주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거주 조건도 당초 농·산촌 경영주의 거주지가 동일 시·군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로 대상을 완화 적용기로 했다.

다만,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해 접수순위를 반영하는 만큼, 해당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고,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 증명서류 등을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선불 충전카드도 지급되며,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유효상 기자

도, 식품진흥기금 활용 시설개선 용자사업 연중 실시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 업종의 경영을 돕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용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용자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 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위탁운영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사업자로, HACCP 인증시설,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영업허가(신고, 등록) 6개월 미만이거나, 휴·폐업, 용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

정처분 받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용자를 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는 제외된다.

용자한도액은 식품 제조·가공업은 2억2,000만원, 식품접객업은 7,000만원이며,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은 1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용자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진흥기금 용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되며, 용자조건은 금리 연 1%,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유효상 기자



4월 '이달의 한국관뉴딜' 감사패 수여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교육부 4월 '이달의 한국관뉴딜' 감사패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소규모 어가에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북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어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어촌 정착의욕 고취를 위해 지난 3월, 정부추경 시 제4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사업 수급자와 저소득 어가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 지난 28일에 각 시·도에 통보했으며, 도내 대상자는 1,080여가다.

이번 사업은 '영·영농·영림지원 경영안정 도도 바우처 지원(100만원)'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하지만, 타부처의 동일 성격 사업이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등과는 중복수령이 불가하다.

대상자로 확정된 어업인은 5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는 어가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어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생필품 구입, 교통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5월 초까지 바우처 카드를 제작해 각 시·군에 송부할 예정이며, 시·군은 대상자에게 우선, 문자 연락 등을 통해 사업 대상임을 알리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바우처는 8월 31일까지 전액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본 어가의 경영 안정과 어촌 정착 의욕 고취에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도민 반짝이는 아이디어 찾습니다"

도, 청년층 사회진출 촉진책 마련 방안 등 테마제안 공모

전북도가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행정 및 정책에 반영하고자 30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2021년 도민 테마제안 공모'를 추진한다.

도민 테마제안의 주제는 '혼자가 아니라, 전북도 청년 희망 공모'로 청년층의 단결·고립 및 사회진출 자체 등의 현상에 대한 대책을 공모한다.

이는 실효적인 인구대책 수립을 위해 청년층 사회진출 촉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도내 공무원 대상인 일회용품(특히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및 재활용 방안을 공모한다.

특히, 플라스틱 정책에 대한 공모는, 작년 정부의 국정 현안으로 발표된 포괄적인 방안과 적극적인 실천을 필요로 하는 주제이다.

도민테마제안은 도정에 관심을

가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 시 주제에 맞는 내용과 소정 양식을 갖춰야 하며, 접수는 국민신문고(<http://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과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공모로 접수된 도민의 아이디어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우수 아이디어 선정과 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본심사에서는 온라인 정책선호도 조사를 실시, 최종 우수 제안 선정 기준은 온라인 정책선호도 조사 10%, 오프라인 발표심사 90%이다.

오는 9월 경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심사를 실시한다.

위원회에서는 도민 대상 공모에서 6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민 테마 제안 공모 우수 제안 채택 시 금상 150만원, 은상 120만원, 동상 7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유효상 기자

바지락 대량 종자생산 성공

전북도, 전국 최초 겨울철 축제식 양식장 활용 60만 마리 생산

전북도가 겨울철 축제식 양식장을 활용한 바지락 종자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겨울철 유류 축제식 양식장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먹이생물 배양 및 수질관리 등을 통해 바지락 종자 60만 마리 생산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바지락 종자 생산은 실내 사육수조에서 생산했다.

기존 실내 사육 수조는 바지락 종자 각장 5mm 이상까지 성장에 필요한 먹이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축제식 양식장을 활용한 종자생산 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 마침내 바지락 종자 60만 마리를 전국 최초로 생산했다.

도는 이번엔 생산한 60만 마리와 실내 사육수조에서 생산한 140만 마리 등 200만 마리를 고창군 연안 갯벌에 30일 무상 방류할 계획이다.

도는 봄철 바지락 성장 시기에 맞춰 종자를 생산·방류하면서 어업인과 휴먼기 축제식 양식장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도는 전국 바지락 양식 생산의 74.8%를 담당할 정도로 최대 바지락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7,000



톤의 바지락 종자를 전량 충남도 및 중국으로부터 종자를 확보해왔다.

또, 최근 바지락 종자의 자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안정적인 종자 수급이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 축제식 종자생산 기술 확보로 종자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70억원(국비 35, 도비 35)을 투입해 수산기술연구소에 첨단 ICT를 활용한 패류 종자 대량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등 우량종자 생산·보급으로 바지락 양식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병권 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연구소가 추진 중인 패류 종자 대량생산 시설과 연계해 바지락 종자 독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시험연구를 통해 도내 자원량 회복과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도 전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제15회 전국 장애인가요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전국장애인가요제를 실시하오니 장애인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문화예술 참여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찬 가요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과 지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본부장
김양욱



제전위원장
김철환(은혜상사 대표)

- 참가대상: 전국의 등록 장애인 만16세 이상
- 참가제외: ① 전국대회에서 대상, 1등, 최우수상 ② 상업적인 성격으로 대회만 나오는 자 ③ 주최 측의 참가규정에 따르지 않는 자
- 접수처: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 5층 (사무국) 전화 (063)286-6678, 231-6669
- 기타: ① 참가비 없음 ② 예선에 불참자는 제외함

● 일시: 2021년 5월 8일 (예선 오전10시, 본선 오후 2시 30분)
● 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 주관: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전라북도등록단체)
● 후원: 전라북도, 꿈드래장애인지원회, 새빛장애인자립센터,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수정과 한울타리협의회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